고려대장경 내년 완역

한글대장경 대중화 '눈앞'

"전법의 해 맞아 보급·읽기운동 펴자"

한문경전 선호풍토 바꿔야…편집등 보완 '발등의 불'

"이런고로 행자(行者)는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이와같이 경전을 듣고 의혹을 내지 말며 응당 일심으로 이 경전을 널리 설하면 세세에 부처님을 친견하여 불도를 속히 성취하리라" 〈묘법연화경 상불경보살품〉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는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 법신(法身)의 역할을 하면서 불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한다는 설법이다. 새해를 맞아 조계종이 97년을 '전법의 해'로 정함으로써 살아있는 부처님 법신인 한글대장경을 널리 보급하고 읽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불경의 한글화 작업은 쉽고 바른 불교의 대중화를 의미하고, 한국불교학 발전의 토대마련과 저변확대에 기여하리란 기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지난 1962년 역경이 도제양성, 포교와 함께 조계종단의 3대지표 가운데 하나로 책정된지 36년만에,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지 1천6백여년만에 동국대 역경원(원장 월운)이 고려대장경 완역(98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한글화 작업 못지않게 활발한 보급운동과 한글대장경 읽기 운동을 벌여야 할 때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한글대장경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전환, 읽기 쉽고 부담없는 디자인 개발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님·신도들의 잘못된 선입견도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많은 학자들과 스님들이 한문으로 된 경전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읽기 쉬운 한글대장경 보다는 해독이 어려운 〈대정신수대장경〉등 한문 불경을 진짜 법보(法寶)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경원 자체의 계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완벽한 번역과 교열·교정을 통해 최선의 역경을 완수함은 물론, 체계적인 홍보와 판매망을 구축해 더욱 활발한 보급운동을 벌여야 한다. 또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눈을 끌 수 있는 산뜻한 편집과 읽기 쉬운 활자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조계종은 역경불사를 통해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를 다지려 했다. 그러나 애써 만든 한글대장경에 대해서는 번역상의 의미만 부여됐을뿐 실제 불자들에게 두루 읽히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종단과 각급사찰이 만족할만한 홍보를 해주지 않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한 결과다. 기독교가 한글화된 〈성경〉을 통해 쉬운 교리를 전파함으로써 국내에서 급성장한 배경과 대조적이다. "경전이 방대한 만큼 일일이 집에다 비치하기 어렵다면 사찰이나 공공기관 등에 비치해 활용토록 하는것도 좋고 종단차원에서 독송대회를 정기적으로 여는것도 좋은 방편일 것"이란 역경원장 월운스님의 지적은 종단차원에서 검토할 만한 일이다.

김재경 기자

역경 어디까지 왔나

70% 진척…내년까지 260권 완역
CD롬 개발등 경전 전산화 추진

1965년 6월 30일에는 간경도감에서 역경된 책이 나온 후 5백여년만에 한글대장경 〈장아함경〉이 동국대역경원에서 최초로 역출되었다. 1964년 7월 31일 동국역경원 개원 이후 첫 번째 결실이었다. 이후 96년까지 한글대장경 197권을 출간함으로써 고려대장경 총 16만1451면 중 70%정도가 번역되는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역경원은 98년까지 총 2백60여권의 한글대장경을 간행함으로써 고려대장경 역경사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한글대장경 간행사업은 1994~1997년 4년간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고려대장경 번역지원금) 12억2천만원, 동국대에서 14억7천만원을 각각 보조받으면서 더욱 활성화 되었다. 역경원은 이 예산으로 미번역된 고려대장경을 매년 26권 발간하고 있으며, 자체부담으로 고려대장경에서 제외된 한역경전, 팔리어경전, 한국고승논저 10권등도 역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94년에는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곡〉등 26권, 95년에는 〈도행반야경〉등 26권, 96년에는 〈아비달마발지론 外〉등 30여권을 간행하는 성과를 내었다. 97, 98년에도 〈대승장엄경론〉〈대승보요의론〉등 각 30권씩을 번역 출간한다는 것. 지난 66~75년에도 국고보조를 받은 바 있는 역경원은 98년에도 국고보조를 청원할 계획이다.

한편 역경원은 한글대장경 간행사업과 함께 CD-ROM 개발등 전산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계획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반 불자들은 CD-ROM을 통해 언제든 원하는 경전의 한문원문과 한글번역문, 주요단어 등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역경원은 이를 위해 삼성대우 등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고려대장경연구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무비스님 풀이 천수경

요즈음에 와서 문학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괴롭고 외로운 길인가를 뼈아프게 깨닫고 있다. 아니, 글을 쓴다는 것은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작업임을 새삼 느낀다.

모처럼 불교소설을 써보았었다. 불교문인협회 회장인 임영창선생이 몇해 전에 필자에게 불교에 관한 어떤 책자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 자료로 불교소설 하나 만들어 보시오" 하시며 건네 받았던 것이 〈소설 관음사〉를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막상 집필에 들어가 보니 자료가 미비해서 어려움이 많았다. 더욱이 불교에 대해 지식이 얕은 나로서는 그저 막연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고승열전〉이며 〈삼국유사〉 등 불교에 관계된 책들을 다시 다방면으로 구해 탐독하는 등 참고하게 되었다. 결국 착수한 지 5년만에 집필을 끝내게 되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다. 〈무비스님 풀이 천수경〉(불일출판사 刊)도 이때 접한 책이다.

윤 형 복 〈소설가〉

〈천수경〉은 젊은 시절, 몸이 아파 절에 휴양을 가서 처음 귀로 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니고 다니며 독송해 온 경이 되었다. 젊은 시절 많은 풍파를 거치면서 몸이 약해지고, 문학을 하면서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마다 〈천수경〉은 내게 잡념을 지워주고 고요와 안정, 밝은 지혜를 일러 준 법신(法身)이 되어 주었다.

교리적의미·신행방향 쉽게 안내
잡념 지워주고 지혜찾는 길 제시

〈천수경〉은 많고 많은 경전 가운데 우리와 가장 친숙한 경전중의 하나이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는 물론이고 오랜 연륜이 쌓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교신자라면 누구나 불교 공부를 하는 동안은 내내 독송하며 만나는 경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충의 뜻을 알고 외울뿐 깊은 뜻과 경전적인 함의는 깨우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런점에서 〈무비스님 풀이 천수경〉은 〈천수경〉에 대한 교리적인 의미와 신행의 방향을 적시해 주는 불자들의 필독서라 생각된다.

무비스님은 〈천수경〉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를 통해 바람직한 삶을 제시해 주는 경전"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대승불교를 수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불자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경전이란 설명이다. 스님은 또한 "〈천수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심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 일상생활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가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천수경〉은 교리적인 면보다 신앙적인 색채가 짙은 경이다. 우리가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천수경〉을 독송하는 것은 〈천수경〉이 어떤 부정하거나 꺼림직한 것들을 모두 소멸시켜 우리 자신과 주변을 청정하게 하는 위신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명력이 〈천수경〉을 그토록 애송하는 경전으로 만든 한 예일 수도 있을 것이다.

■ 경암스님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주옥같은 禪詩 100편 묶어

"8만 4천 법문이 곶 한 송이에 갇힘을 보고/ 눈푸른 납자(衲子)는 꿈깨어 회열로 이말 쳤단다/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네 이마도 안 남으리."('무문이 문임을 안다면'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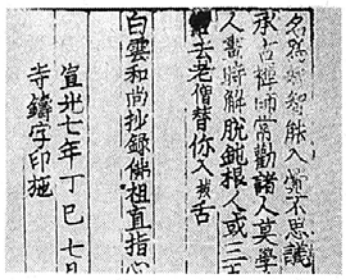
시인이자 대한불교불입종 총무원장인 경암스님이 禪시집 〈무문이 문임을 안다면〉(대흥기획 刊)을 펴냈다. 이번 시집은 시조시집인 〈낙뢰목의 여진〉〈산승문답〉〈시조시장경〉, 시문집 〈인연〉〈불타의 여래〉등에 이은 6번째 시집. '우주가 기침이 되는'등 선시 1백편을 담고 있다.

장이두스님(해동불교대학장)은 이 시집에 대해 "100편을 다 훑어봐도 인생의 근원적 괴로움으로부터 法을 찾는 법을 얻는 길에 회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시요 주옥같은 법문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평했다.

출판학제

'直指' 인쇄본 찾습니다

청주시민회 '1천만원 현상'



"청주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직지(直指)' 인쇄본을 공개 수배합니다."

충북 청주지역 시민운동단체인 청주시민회(상임대표 최병준)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일명 직지심경·사진) 찾기에 나섰다.

청주시민회는 최근 지방의원과 학계인사,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직지찾기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15일 현판식을 가진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회는 '직지'를 처음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각계 인사의 후원금으로 1천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민회는 이와함께 프랑스에 보관돼 있는 '직지'를 돌려받기 위해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파리시민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3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6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7	네 발밑부터 살피라	정 념	장 승
8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9	禪 이야기	일 지	운 주 사
10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광주·전남의 전통사찰 2(사찰문화연구원 저)=우리나라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 전통사찰총서 제 7권. 광주광역시의 신광사, 전남 곡성군의 태안사 등 광주·전남의 전통사찰 41곳을 답사했다. 사찰의 연혁에서부터 하나하나의 성보에 깃든 의미, 그 절이 지니는 신앙의 성격, 관련설화 등을 소상히 밝혔다.

〈사찰문화연구원 1만2천원〉

▲길에서 쓴 그림일기(이호신 저)=화가 이호신이 10여년 동안 우리 땅 곳곳을 답사하며 진흙속의 진주를 캐듯 그리며 쓴 진솔하고 감동적인 국토기행문. 이 땅의 얼이 숨쉬고 있는 자연과 인간과 전통문화유산, 그것들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진수를 찾아 그림과 글을 통해 형상화 했다. 〈현암사, 1만2천원〉

▲어머니의 등불을 가슴에 걸고(양동수 저)=모정불심(母情佛心)으로 되살아난 사형수 양동수법사의 참회록. 사형수가 된 내력에서부터 헌신적인 노모의 사랑에 감동한 박정희대통령이 무기수로 감형시켜 살아나기까지의 과정과 저자의 노모가 교도소 주변에 방을 얻어놓고 16년간을 하루같이 인근 절에서 3천배를 하고 동네의 궂은 일을 솔선해 하는등 눈물겨운 옥바라지가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사 6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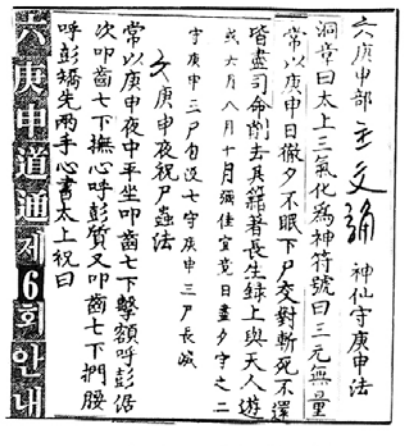
▲그래도 우리에게 산이 있기에(김대환 저)=한국산악회 부회장 김대환박사(이대 명예교수)가 40여년간 산에 오르며 사색해 온 단상들을 모았다. 저자는 등산을 평생 습관적으로 체질화하고 있는 산악인은 언제나 산을 호흡하며 산을 통해 스스로의 인격은 물론 넓고 깊은 인간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수문 9천원〉

육신통(六庚申道通)제6회 법회 안내

大道人되는 六庚申道通 제6회 기도법회가 양력 1월17일(음12월 9일 해시)에 입제하여 1월18일 (음 초 10일) 밤 해시에 회향하오니 동참하시여 일만이천 도인 대열에 입문합시다.

하늘이 인재를 만들려면 어려운 역경과 고행의 시련을 참고 견디어낸 자만이 도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통한 자리인 만큼 말문과 문자와 아상과 학문을 초월한 자리인 고로 하늘, 땅이 그 소임을 맡기려면 근본심지를 시험하는 것이 근본 진리 이거늘 그 고비를 넘기는 기도가 육경신 기도이며 이 기도의 수행을 통하여 천안통, 타심통, 천이통, 누진통, 신족통, 숙명통을 성취하여 대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병자년 마지막 제6회 경신일은 동·서양 시방에 모든 영계나 시방법계 영혼들의 천문이 열려 천신삼계, 지신삼계, 영신삼계와 木火土金水日月星神 모든 비밀장을 통할 수 있는 기회이며 1만2천 道人대열에 賢知靈通 4천명 智知靈通 4천명 聖知靈通 4천명이 모두 靈界의 맡은바 분야의 심지근본에 맞게 通할수있는 기회를 참고하시여 입문하시면 누구에게나 한가지 소원은 꼭이룰수 있으며, 심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을 여의는 기도인 것입니다.



大道眞人이 되는 六庚申 주문 본문

동양철학 및 기문둔갑 풍수지리 지도

■ 강의 내용
1. 동양철학 음양오행(3개월)
2. 천문지리 기문둔갑(3개월)
3. 풍수지리 음택·양택(3개월)
※ 옴마니반메홈 선체조법

■ 강의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8시

입제일 : 1997년 1월 17일(음12월 초 9일) 밤 10시
해제일 : 1997년 1월 18일(음12월 초 10일) 밤 해시
회 비 : 5만원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전화 : 02) 821-6622 · 야간 923-3110 · 휴대폰 017-236-3110
육경신도통회 태일선원장 법사 태일 합장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